

고삐 풀린 물가에 서민경제 '빨간불'

10월부터 전기료·우유 줄인상...즉석밥·라면값도 올라
국제 유가 상승 지속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 우려까지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전력이 10월1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가운데 농축산물은 물론 우유·탄산음료·주스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생활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정부와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을 kWh당 3.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도입된 전기요금을 발전용 연료 가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

앞서 올 초에는 식품업체들이 유가를 비롯한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대거 올렸다. 지난 2월 햇반(CJ제일제당), 캔커피(동원F&B), 오투기밥(오투기) 등 즉석밥 제품 가격이 -11% 상승했고 8월에는 신라면(농심), 진라면(오투기), 불닭볶음면(삼양식품) 등 라면 가격이 6-11.9% 올랐다. 그 외 제과류, 장류, 가공육 등도 가격이 상승 조정됐다.

여기에 국내 유업계 1위 서울우유가 10월1일부터 흰 우유(1ℓ) 가격을 5.4% 인상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2천500원 중반이었던 우유 가격은 2천700원으로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만으로, 올해 8월 원유값이 오른데 따른 조치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도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우유를 시작으로 다른 제품까지 연달아 가격이 오르는 '밀크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기수회기자



30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 '시페퍼스' 창단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 김광아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 선수단 등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AI 페퍼스 배구단 공식 출범...광주 동계 스포츠시대 '활짝'

어제 시청서 창단식...10월19일 염주체육관 첫 홈경기

호남권 유일 프로 배구 구단인 'AI 페퍼스'가 30일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AI 페퍼스'가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만날 준비를 마치면서 지역 내 배구 저변 확대는 물론 겨울철 프로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구단주인 장매튜 대표를 비롯해 이병훈 국

회의원, 신무철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전갑수 광주광역시 배구협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단식이 열렸다.

창단식은 창단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2021-2022 정규리그에서 착용할 홈, 어웨이, 리베로 유니폼 공개 및 감독·선수단 기자회견 등 순으로 진행됐다.

AI 페퍼스 홈 경기는 오는 10월19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며, 2021-2022

2 프로배구 정규리그는 2022년 3월까지 계속된다.

앞서 광주시는 여자프로배구단 연고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용섭 시장은 올해 3월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배구연맹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 매튜 대표를 만나 광주 연고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유치 추진단을 꾸리며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난 5월13일 광주시와 AI 페퍼스 배구단의 연고지 유치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장 매튜 대표

의 지역 배구인재 양성 후원금 기탁이 이어지기도 했다.

AI 페퍼스 창단으로 지역 내 배구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들이 겨울철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스포츠도시 광주 위상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여자배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호남권 구단 창단이 프로배구 선수층 및 팬의 확대 등 배구의 외연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지기자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
10월29일 오후 3시 광주YMCA 2층 무진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민단체인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통신사인 뉴스1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광주YMCA에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
-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15:00-17:00
- 장소 : 광주YMCA 2층 무진관
- 기조발표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주제발표 : 서순복 조선대 교수,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 토론 : △사회 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토론회자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일웅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안병락 광주시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 주최 : 광주매일신문·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뉴스1
- 주관 : 품질자치시민들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8)

광주매일신문

광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5천명 넘어서

전남, 일상 속 산발 감염 지속

광주·전남에서 일상 속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광주는 코로나19 발생 후 1년8개월 만에 누적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방역 지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선부른 일상 회복 기대감 대신 강도 높은 방역 긴장감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지역 확진자 수는 5천13명으로 집계됐다. 1천명 단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세의 심각성을 보였다.

지난해 2월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천명을 넘어서기까지 10개월 22일(같은 해 12월25일) 걸렸지만, 국제학교 집단 감염 영향으로 2천명(지난 2월 23일)이 될 때까지 기간은 불과 1개월 28일이었다.

이날 현재 신규 확진자는 2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외국인이었다. 전남에서는 19명(여수 7명, 나주 6명, 광양·고흥 2명, 순천·영암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3085-3103번으로 분류됐다. 이 중 10명의 감염경로가 조사 중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제검사 4명, 유증상 검사 4명, 타지역 방문 선제검사 1명, 행복버스 선제검사 1명이다. /오승지·임후성기자

Today

- 김경수의 광주명 '최초' 이야기 5면
- 미리기본목포문학박람회 9면
- 박계영의 마음에 좋은 제철음식 14면

※개천절 대체휴무 4일자 신문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깨끗한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태양광 바람으로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맑은 하늘을 약속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린뉴딜로 열거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